

트럼프 당선 후 한화오션 주가 3.2배... 차익실현 적기 판단

산은 한화오션 지분매각 배경

2000년 출자전환... 25년만에 매각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 기대 "시장 영향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

한국산업은행이 한화오션 보유 지분을 매각을 결정하고, 공적자금 회수에 나섰다. 산은이 지난 2000년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지분을 확보한지 25년 만이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기로 결정한 것.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불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형태로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수요예측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한화오션 지분 19.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1%)에 이어 2대 주주다.

산업은행이 지분매각에 나선 이유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주가상승 영향이



한화오션 부유식 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 모습.

했다. 한화오션 주가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일인 지난해 11월 6일 주당 2만788원에서 이달 28일 종가 기준 8만9300원으로 3.2배 올랐다.

건전성 개선도 필요하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9%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주식 등 위험자산

에 시가 대비 가중치(250%)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19.5%의 지분을 4~5%로 쪼개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통매각에 나설 경우 시장에 주가 하락 등의 충격을 줄 수 있고, 수요처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주식을 팔면 매수가 2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방지하

는 효과도 있다.

지분을 4%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은 약 1조945억원으로 총 5번에 걸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지분을 5%로 매각하면 1회 매각금액은 약 1조3681억원으로 매각횟수를 4번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아직 매각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잔여지분 처리 방안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오션의 최대주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이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한화그룹의 지분율은 46.28%다. 금융권 안팎에선 산은의 한화오션 지분 매각 수량을 1300만주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수량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1면 '기밀 유출 막자...'서 계속

"재부팅 문자·전화 등 도용 시도 주의해야"

보안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포보다는 실질적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이 다른 단말기에 장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서비스"라며 "해커가 유심을 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2023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해 개발된 것으로, 사실상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며 "해킹 사고 이후 비정상 인증 차단(FDS)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고, 유심 무료 교체 조치도 함께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보안 전문가는 "불필요한 인증이나 본인명의로 개통된 미확인 회선, 처음 보는 문자 또는 통화가 있을시 즉각 신고하고 재부팅을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유심 탈취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전국 매장과 공항 로밍 센터를 통해 유심 무료 교체를 이어갈 예정이며, 사고 이후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는 별도 현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 대해서도 무료 유심 교체를 적용한다.

한편, 알려진바에 따르면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인 27일 23만명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고 온라인을 통해 유심 교체를 예약한 사람은 263만명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300만명 수준이다.

/김서현 기자 seoh@

KDI "환율 1500원까지 올라도 물가 영향 제한적"

단기 상방 압력... 장기적 축소 전망 "변동폭·지속성 감안해 정책 설계해야"

최근 환율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건 제한적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경우 물가 상승률은 1분기(2.1%) 대비 최대 0.24%포인트 상승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

고서를 통해 "강(強)달러 요인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하지만, 지속성과 파급력은 국내 요인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불안 등이 복합 작용해 환율이 급등했다. 이에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물가 압력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일시적으

로 높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봤다.

국내 요인에 의한 환율 상승은 수입품 전반에 광범위하게 파급되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율이 달러화 요인으로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같은 분기에 0.04%p 오르지만, 1년 누적으로는 0.07%p 상승에 그쳤다.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상승은 동 분기에 0.04%p, 1년 누적으로는 0.13%p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다.

KDI는 또 원·달러 환율이 현재(1439.0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환율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1분기 대비 최대 0.24%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1400원으로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최대 0.4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폭과 지속성을 감안해 거시경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환용수 기자 hys@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1차 변경) 보상계획 안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64호(2021.6.28.)로 승인 고시 및 제2025-10호(2025.3.20.)로 변경 승인 고시되어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삼촌리, 사강리 일원	2020.12.~ 2025.12.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용

가. 서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신천리, 쌍정리, 사강리 일원 7필지

* 금번 공고 및 보상지역은 실시계획 변경(1차)에 따른 변경 및 미보상 지역에 한함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http://songsan.kwater.or.kr)에 공지합니다.

* 공고된 편입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분할축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5.04.30.(수) ~ 5.14.(수) 09:00 ~ 18:00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 보상부(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비봉로 388)
- 화성시 도로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 화성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매봉산길 12)

다. 열람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및 관계인임을 확인받은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라. 이의신청: 열람결과 대상토지, 물건,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 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 대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조성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실보상 협의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기준

- 대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2020.11.10.)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부 협의 양도한 자(신청자 토지 소유 지분 전부 협의 양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 및 종사하였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대토면적 :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에서 대토보상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급 가능하며, 1인당 1필지를 일반분양가격(상업용지는 감정가격×유사용자 평균낙찰률)으로 공급
- * 「대토보상 세부기준」은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안내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라. 현재 토지분할 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 분할 전 기존 지번으로 보상계획 공고가 진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보상시기

가. 2025년 8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6.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5.05.14.)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수자원공사 시화도시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추천 동의시 무효처리함

- 다. 공부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감정평가되며, 임야 등 토지상에 자연림이 있는 경우 그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됩니다.
- 라. 토지 일부가 본 사업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사업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 중,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의 경우 영농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을 사업기간 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 보상액,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시 별도 통지 드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의처
1) 전화 : 031-369-8320~3
2) FAX : 031-369-8309

2025. 04. 30